

변화하는 시대와 교회의 가치관 교육

Value Education of the Church
in a Changing World

김성수 _ 교육학박사, 고신대학교 총장
Prof. Dr. Sung Soo Kim, President

목차

I. 서론	133
II. 변화하는 시대와 가치관 교육의 중요성	134
III. 가치관 교육의 세속적 방법	140
IV. 교회의 가치관 교육	144
V. 맺는 말	148

주요어 | 인본주의, 세속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가치정화이론, 도덕교육, 가치교육

요약문 |

오늘날의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교회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독특한 가치를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학교, 또래집단, 그리고 사회 전반의 지배적인 가치들이 모두 기독교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는 상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가치관 교육을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해 보자 한다.

1970년대 이후로 도덕적 가치교육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지배적이었다. 하나는 시드니 사이몬(Sidney Simon)의 가치정화이론(values clarific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콜버거(Lawrence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에 근거한 도덕적 추론접근(moral reasoning approach)이다. 그러나 가치정화이론과 콜버거의 도덕발달이론은 모두 변화하는 시대의 아동을 위한 가치관교육의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가치는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붙잡는 것' (caught)이기 때문에 교회는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아동들의 가치에 무엇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교회의 가치관 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협력하는 가운데 모범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치교육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포괄적인 계명을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김성수교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남아공화국 포츨스트롬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철학박사)에서 수학한 후, 현대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물금교회 협동목사,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요 역, 저서로는 「기독교육원론」(소망사), 「내일로 가는 교회교육」(영문), 「가르침은 예술이다」(IVP) 등이 있다.

Abstract

Value Education of the Church in a Changing World

Prof. Dr. Sung Soo Kim, President

It certainly is not an easy task to teach the values that are based upon the Bible to the children and the youth of the church in today's changing society where the dominant values are radically opposed to the values of the faith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and with what content should the church within a society that is dominated by the values of humanism, secularism, postmodernism, pluralism, materialism, and hedonism educate the covenant children about values.

Since after the 1970's, two kinds of approaches have prevailed in the areas of moral education. One is the values clarification approach of Sidney Simon, and the other is the moral reasoning approach by Lawrence Kohlberg. But in a constantly changing society, neither the values clarification theory nor Kohlberg's moral reasoning approach can serve as appropriate methods of moral education for the covenant children. Since values are not things that are taught but rather caught, the faith community should observe carefully what is affecting the values of the children either implicitly or explicitly. The value education of the church should be carried on cooperatively with the family and the school. The church's education of values should be done cooperatively with

the family and the school in various ways. The contents of the value education of the church should focus on the great commandment to "love your God and love your neighbours yourself."

key words:

humanism, secularism, postmodernism, pluralism, materialism, hedonism, value clarification, moral education, value education

I. 서론

인간의 모든 행동방식은 독특한 가치들에 기초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치는 대체로 보편적이고 지속적이며, 우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위한 바람직한 안내자로 인식되어져 왔다. 가치는 인간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여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삶을 인도한다. 교육적 활동은 특별히 가치에 기반을 두고 가치를 양육하는 활동이다. 우리가 교육의 장에서 어떤 것을 하나의 사실로 가르친다면 그 사실 자체를 진리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가르침은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하나의 사실을 가르친다는 자체가 바로 학생들에게 우리 자신 혹은 우리의 문화가 그것을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칠 정도로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활동은 결코 가치중립적일 수가 없으며,¹⁾ 오히려 가치내재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활동이다. 교회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독특한 가치를 보여주고, 이를 가르치며 내면화시켜 주어야 한다. 가치교육은 교회교육의 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변화하는 사회, 특별히 전통적인 가치와 초월적

1) Richard Edlin,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 역, 「기독교교육의 기초」,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4, pp. 51-69)

John Van Dyk,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김성수 역, 「가르침은 예술이다」, 서울: IVP, 2003, 62-64)

Harro Van Brummelen,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이부형 옮김, 「기독교적 교육과정」 다담들, 서울: IVP, 2006, pp. 13-32)

인 가치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교회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독특한 가치를 보여주고, 실천하며,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학교, 또래집단, 그리고 사회 전반의 지배적인 가치들이 모두 기독교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는 상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가치관 교육을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변화하는 시대와 가치관 교육의 중요성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다방면에 걸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치관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1.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세속적 인본주의의 특징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본주의(humanism)란 단순히 인간을 중시한다는 소박한 관심을 넘어 인간자율성(human autonomy)을 절

대화하고 인간의 무한정한 가능성을 강조한다.²⁾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을 하나님과 독립적인 존재로 상정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연과 달리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제한되지도 않고, 그 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피조물로서의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응답하는 의존적인 피조물이 되는 대신에 인간은 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견지에서 규정된다. 요컨대, 인간이 인간 자신에게 스스로(autos) 법(nomos)이 되고 있다. 세속주의란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 복음의 능력과 범위를 주변화(marginalize)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³⁾

세속주의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반드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 삶의 중심영역으로부터 주변화시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은 세계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말해야 할 메시지를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속적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신앙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등 인간 삶의 핵심적 영역과는 무관하며 단지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⁴⁾

이러한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인 가치는 오늘날 아동들의 사용하

2) Paul Kurtz, *Humanist Manifestos I and II*, Buffalo, New York: Prometheus Books, 1984, pp. 3-23

3) Os Guinness, *The Gravedigger File*(이종필 옮김, 「무덤파기 작전: 문화를 통한 교회전복 전략」, 서울: 낮을울타리, 1997, pp. 60)

4) Os Guinness, *The Gravedigger File*, pp. 83-106

는 교과서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치이다. 학교교육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기술주의와 진보주의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있으며, 개인적 용기와 인내가 성공과 행복의 기본요소라는 신념을 조장한다. 가족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속된 임의의 집단이라고 가르쳐지고 있다.

2.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

21세기 사회의 또 다른 한 사회문화적 특징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통합된 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더니즘은 인간의 합리성(이성의 능력), 과학, 그리고 과학기술(테크놀로지)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수공업중심 사회에서부터 기계화(자동화)와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자본주의가 정착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낙관적 진보주의를 태동시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보에 대한 신앙(faith in progress)마저 갖게 만들었다.

5) John W. Cooper, "Reformed Scholarship and The Challenge of Post-Modern Pluralism" (김성수 역, "개혁주의 학문과 포스트모던 다원주의의 도전", 김성수, 신영순, 전광식 편저, 「기독교대학과 학문 자료집(I)」,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1995, p.142)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면에서 모더니즘의 계속성(continuity)과 반동성(reaction)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의 계속성이라는 것은 이성과 과학에 대한 포스트 모던 사회의 계속적인 관심과 강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보여주는 과학과 과학기술의 모습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원동력을 제거시켜 버리고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기형화된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대량생산으로 인한 광고 산업의 발달과 소비주의(consumerism)의 조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소비주의는 다시금 인간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노동의 신성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서 찾게끔 만들고 있으며, 소비 유형의 동질성과 유사성에 따라 인간을 판단하고 교제권을 형성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던 시대의 과학과 과학기술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변혁을 가져왔고, 다니엘 벨(Daniel Bell)과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등이 말하는 지식기반사회 또는 신지식사회를 창출해 내었다.

다음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성(reaction)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더니즘이 보여주었던 인간 이성(reason)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인간의 감정과 영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의미하며, 이로 말미암아 과학과 신비주의의 혼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 초월적,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부인한다. 모더니즘은 인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진보에의 신념을 찬양한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학적 합리성이 보편적 진리를 제공해 준다는 입장을 거절한다. 합리성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과 삶의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합리성과 객관성보다는 주관성과 감정, 그리고 이미지와 경험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성을 찬양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단수성 보다는 복수성, 그리고 객관성 보다는 주관성과 내면성을 강조한다.⁶⁾ 말하자면 의미의 절대화를 거부하고, 상이한 관점과 태도에 대한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이한 세계관의 다양성을 찬양한다. 그러므로 메타-이야기(meta-narrative)를 거부한다. 각각의 세계관은 그 자체의 참된 이야기(story)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정형(pattern)을 깨뜨릴려고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표방한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생각일 뿐이다.”(It's your opinion.)라는 말, 또는 “그것이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몰라도 나에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듣고 있다.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현대 문화의 다원주의적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현상을 보고 있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이다. 어떤 다른 사람의 가치관단을 비판하거나 특정 종교만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념이 상이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억압하는 상태로 인도해 갈 수도 있는 문화적 오만과 지적, 종교적 교조주의의 한 형태라고 비난받고 있다.

6) *Ibid.*, p. 160

3.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어 버리고 초월적,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 가장 쉽게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이다. 실제로 오늘 우리 사회의 문화는 물질주의와 현세적이며 쾌락주의적인 가치관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사회는 로마인들만큼 쾌락을 사랑하고 고린도인들 만큼이나 도덕성을 상실했다. 현대사회는 폭력성과 퇴폐성으로 얼룩져 있다. 특별히 현대사회의 대중 문화산업은 시장점유율을 높임으로써 더 큰 이윤을 창출한다는 일차적 목적을 가지고 대중 문화상품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흥미롭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간다. 그 결과 대중문화는 오락지향적이며 쾌락지향인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섹스, 폭력, 모험 등이 주된 소재가 되게 된다. 이동들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2분짜리 광고가 들어있는 10분 뉴스를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학생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다” 또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가치관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동안 무장전투로 15세 이하의 어린이 150만명을 죽이고, 600만명을 육체적 불구로 만들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포르노와 부정한 성, 폭력, 약물남용에 대한 중독으로 가득찬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의 지배적이며 침투적인 대중매체는 일반적으로 성

경이 가르치는 가치들을 대항한다. 우리 사회는 가능한 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물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교회는 언약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관 교육에는 항상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저항하고 도전해야 하는 긴장이 있게 마련이다(요 17:14-18). 아동 및 청소년들은 주변 문화에 쉽게 동화된다. 그러므로 성경적 가치로 아동들을 문화화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개인주의와 공격성, 소비주의를 조장하는 환경 속에서 아동들로 하여금 협동성과 이웃 사랑, 청지기적 의식과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와 같은 가치 전도의 사회 속에서도 잘못된 가치체계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아동 및 청소년들을 문화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성경적 가치와 기준으로 그 구 성원들을 양육하여야 한다.

III. 가치관 교육의 세속적 방법

가치관 교육은 아동의 태도나 행동경향, 행동양식, 의사결정, 헌신감 등에 영향을 주거나 주려고 행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의미한다. 종종 교육자들은 '가치교육' 과 '도덕교육' 이라는 용어들을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가치교육은 도덕 교육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가치교육은 정직, 용서, 성실과 같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교육이다.

1970년대 이후로 도덕교육과 가치교육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지배적이었다. 하나는 시드니 사이몬(Sidney Simon)의 가치정화이론(values clarific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콜버거(Lawrence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에 근거한 도덕적 추론접근(moral reasoning approach)이다. 이러한 접근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에 대해서는 이미 광범위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나,⁷⁾ 몇 가지 문제점들만 간략하게 지적해 보고자 한다.

가치정화이론은 학생들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고찰하고 자신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가치들을 선택하도록 격려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아직 기본적인 가치들, 예를 들면 진리에 대한 존중감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조차도 구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을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동료들과 더불어 피상적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종종 이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결정이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다. 사이몬 자신이 제시하는 한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은 정직한 행동과 부정직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도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신념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많은 학생들은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갖게 된다. 정직함

7) William Kilpatrick, *Why Johnny can't tell right from wrong*,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2 Nicholas Wolterstorff, *Educating for responsible ac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0

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벌을 받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치정화이론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가치정화이론에 기초한 성교육프로그램은 성과 관계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구속적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치교육의 주관적이며 상대주의적인 경향성은 다음과 같은 가치교육의 한 내용과 방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크리스마스에 대해 학생에게 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소녀 학생이 그것을 찾아 나선다. 결국, 소녀는 자기가 딸기와 소나무 가지로 가득 채운 초록색 유리병을 발견한다. “그래, 크리스마스다!” 마지막 줄은 이렇게 적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단지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가치를 육성한다. 첫째로, 현명한 어른들은 삶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가치와 의미들을 알아내는 것이 최선이다. 둘째, 당신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그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가치가 될 것이다. 당신은 혼자 의미를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공동체나 문화적 가치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셋째, 당신이 삶에서 그 어떤 일에 직면하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직 당신에게만 달려있다는 등의 가치이다.

한편 콜버거는 이와는 다른 접근을 한다. 콜버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6단계의 도덕발달단계(6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은 비록 아주 소수

이기는 하지만)를 거치면서 성장한다고 믿는다. 콜버거의 방법에 의하면 아동들에게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을 제시해 주고 이를 자기 자신들보다 한 단계 위에서 논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교사는 아동들로 하여금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연구들은 이 단계들이 콜버거가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위계적(계열적)인 것도 아니며, 그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단계의 발달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주 희귀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콜버거는 주로 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소녀들은 아주 다르게 반응하며 다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반대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더 심각한 것은 콜버거는 합리성(rationality)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이 그러한 이성에 기초한 행동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이미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롬 7:15, 19)고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추론(reasoning)은 언제나 어떤 세계관적 전제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콜버거 자신의 세계관적 전제는 정의의 보편적이며 궁극적인 표준을 추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개인의 능력에 대한 낙성적이며 서구적인 자유주의적 신앙이다. 콜버거의 도덕교육방법은 연민, 헌신, 상상에 대한 여지를 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콜버거는 문화적 신념들이나, 가족의 신앙, 그리고 종교적 신념들이 흔히 도덕적 발달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IV. 교회의 가치관 교육

가치정화이론과 콜버거의 도덕발달이론은 모두 변화하는 시대의 아동을 위한 가치관교육의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가치는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붙잡는 것'(caught)이기 때문에 교회는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아동들의 가치에 무엇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1. 가치관 교육의 방법

1) 가정-교회-학교-사회의 연계성있는 가치관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가치관 교육은 분위기가 중요하다. 가치관 교육은 가정만으로도 안되고 교회교육만으로도 안된다. 학교교육과 사회가 아무리 세속화 되더라도 교회교육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일반적 환경이 지지하기만 한다면 기독교 가치를 받아들이고 행동한다. 1920년대 이후의 조사는 교훈적 방법이든지, 아니면 가치질문에 대한 이유를 학습하는 방법이든지간에 학생들의 가치성향에는 그렇게 지속적인 효과를 많이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일관성있게 보여주고 있다. 공식적으로 가치를 숙고하고 분석하는 가치관 교육은 언제나 긍정적인 풍토와 도덕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인정되고 가르쳐지는 가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아동

을 위한 가치교육이 그렇게 효과적일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2) 가치관 교육은 모범과 모델, 토의, 독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책임성있는 도덕적 행동과 헌신감(commitment)을 효과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교사는 보살피는 자(caregiver)와 모델(model)로서 행동하며, 학생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도록 도와주는 자이다. 이것은 사이몬과 콜버거가 간과하고 있는 어떤 점이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존중하며,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discipline)과 갈등해결의 기술(conflict resolution techniques)을 사용한다. 도덕적 경향성이 내면화되도록 그리스도인 교사는 아동들에게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 주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태도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유들을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모범과 훈육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교사는 또한 책읽기, 글쓰기, 토의, 토론, 의사결정 훈련의 방법등을 통하여 "도덕적 성찰(moral reflection)을 하도록 아동들을 격려한다. 그리고 아동의 내면화된 도덕적 기준들을 끌어내어 이러한 기준들을 구체적인 윤리적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러한 도덕적 기준들을 발전시켜 준다.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사이몬과 콜버거가 간과하고 있는 점들이다.

3) 이야기 방법(story-telling)은 가치관 교육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유치부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아동들

은 아직 도덕적인 지식이나 헌신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교육이나 가치교육을 할 수 없다고 반대한다. 피아제와 콜버그의 발달단계이론들은 이러한 생각을 양육하였다. 이런 생각들은 가치교육을 추상적인 추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아동들에게 가치교육의 내용을 이야기의 형태로 제시해 주면 아동들은 도덕적 가치에 반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들은 성경이야기나 주의 깊게 선정한 다른 이야기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동들은 이야기의 형태를 통해서 제시되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확인한다. 키렌 에이건(Kieran Egan)은 특별히 도덕적/윤리적인 이야기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가를 생각하도록 아동들을 도와주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 가치관교육의 내용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치관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포괄적인 큰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할 것을 명령한다. 이 범위 내에서 교회는 많은 다른 가치들을 가르쳐야 한다.

1) 변화하는 사회의 소비주의적 가치관(consumerism)과 관계해서 교회교육은 정체성(identity)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확립시켜 주어야 한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인간은 더 이상 일(work)에서 삶의 의미(meaning)을 찾거나 근검절약의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소비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의 인간됨을 평가하고 결정한다. 소비 유형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소비주의적 가치관은 이미 교회내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찬송하고 기도

하는 등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치관은 소비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신자들이 현대교회의 신자들이다. 이러한 사회속에서 교회는 나의 진정한 나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체제의 변화 및 정보화 사회와 관련해서 교회교육은 권위(authority)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쳐야 한다. 옛날에는 들리는 목소리들이 단순했지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엄청난 정보와 자료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야 한다.

3) 교회교육은 영적 가치(spiritual value)와 도덕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인간 삶의 다양한 제 영역의 가치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적 가치: 헌신과 경건, 삶을 긍정하는 신앙의 가치,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 도덕적 가치: 성실, 순전함, 정직, 용서, 사랑

정치적 가치: 공의, 권위에 대한 존중, 개인적 권리와 공동체적 책임을 균형지우는 중요성,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미적 가치: 아름다움과 조화, 음악, 시, 춤의 가치

경제적 가치: 자원관리에 있어서 청지기 의식

사회적 가치: 충성, 신뢰, 이타적인 관계, 협동, 친절, 신실함, 타인에 대한 존중, 분명하고 진실한 의사소통

논리적 가치: 냉철한 논리적 사고와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논의를 개진하는 능력

심리적 가치: 감정의 균형, 타인에 대한 민감성, 자기통제, 인내, 분별있는 용기

생물학적 가치와 물리적 가치: 생명과 물리적인 사물들에 대한 존중, 육체의 건강, 순결⁸⁾

V. 맺는 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이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지상명령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당'에 가도록 인도하는 소위 “예수-천당”의 관점에서만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파하여,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던 지금까지의 불순종하던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적인 방향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올바르게 준행하기 위해서는 가치관 교육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지배하는 오늘의 사회속에서 교회교육만으로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가치관교육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의 최선을 다해 이 중요한 가치관 교육을 소명으로 알고 감당해 나가야 한다.

8) Harro Van Brummelen, pp. 79-86